

# 장수골에 온 세 동무



멀고 험한 장수골에는 한모금만 마셔도 장수힘이 솟는다는 수정샘물이 있었어요.

《수정샘물을 내가 먼저 마실테야.》

삐용이는 장수골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청개구리와 박박이가 삐용이의 앞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삐용아, 어데 가니?》

《장수골로 수정샘물 마시러 간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꾸나.》

《흥, 너희들이 멀고 험한 길을 어떻게 따라온다구 그러니?》

그러나 청개구리와 박박이는 그냥 따라왔어요.

삐용이는 하는수없이 두 동무를 데리고 길을 갔어요.



한참 가는데 높은 벼랑이 길을 막았어요.

《큰일났구나.》

삐용이는 울상이 되었답니다.

이때 청개구리가 말없이 바위우에 기여올라가 긴 칙년출을 내려보냈어요.  
삐용이와 박박이는 그것을 잡고 단숨에 벼랑을 올라갈수 있었습니다.

벼랑을 지나 한참 가는데  
이번에는 큰 강이 앞에 나타났어요.

《야단났구나.》

삐용이는 또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박이가 《삐용아, 내 등에  
업혀라.》 하며 등을 돌려댔어요.

삐용이는 박박이의 등에 업혀 넓은 강을 단숨에 건넜답니다.





어느덧 세 동무는 장수골샘물터에 도착했어요.

《야, 나 혼자 길을 떠났더라면 이 샘물을 못 마실번 했어.》

삐용이는 제 잘못을 뉘우쳤답니다.

《얘들아, 여럿이 힘을 합치니 얼마나 좋니.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도  
척척 할수 있고. 우린 앞으로도 서로서로 도와주며 힘을 합쳐나가자.》

《응, 그러자.》

삐용이네 동무들은 물초롱을 맞들고 즐겁게 노래부르며 마을로  
돌아왔답니다.